

» 1면에서 계속

아무리 즐거워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여러 학내 구성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온전히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화려한 축제 뒤에 어두운 면도 존재했다. 바로 쓰레기 처리와 물품 파손 문제이다. 운동장 중앙에는 부스, 푸드트럭 등에서 구매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취식존이 마련되어 있었다. 취식존은 큰 제한을 하지 않고 개인윤리에 따라 이용 및 정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첫째 날 모든 행사가 끝난 뒤 취식존은 엉망진창이었다. 외부 쓰레기, 먹다 남은 음식물, 맥주캔 등 여러 종류의 쓰레기들이 뒤섞여 있었고, 파손된 의자들도 수두룩했다. 심지어는 연예인 공연을 보기 위해 의자 위에 올라가는 위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첫째 날 저녁에는 학과별 단체 카톡방, 학생회 인스타그램 등에 긴급 공지가 발송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총학은 “어떤 사람들이 쓰레기를 방치하고 가면서 ‘몰라 낚뉘, 총학이 하겠지.’라고 말하더라. 너무

충격적이고 화도 났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품 대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모든 의자를 직접 대여하여 쓰고, 파손이 있을 시 5천 원을 받기로 했다. 학생들의 불만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몇몇 학생들은 축제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하던 운영진들을 향해욕설과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 운영진에게 “나와라”, “비켜라”라며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또한, 위험하니 의자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여자 운영진의 손목을 잡으며 “누나 한 번만 봐줘요.” 등 성추행을 일삼는 사람도 있었다. 축제 이틀 차, 무대 위에 오른 총학생회장은 “첫째 날 공연을 보기 위해 의자를 밟고 올라가 다치거나, 의자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다. 또, 운영진에 대한 ‘네가 뭐네 제지하냐.’ 등과 같은 폭언도 자제해달라.”라고 말하며 절실함을 표했다.



첫째 날 행사 후, 취식존에는 치워지지 않은 쓰레기가 가득하다.

더 잘 즐길 줄 아는 한국체대를 그리며

김재훈 부총학생회장은 다음 축제를 준비해야 할 총학생회와 축제준비위원회에게 한마디 부탁한다는 질문에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축제 관련 인수인계가 있을 테

지만, 있더라도 생각보다 매우 힘들 것이다.”라며 “축제 준비 위원은 많을수록 좋다. 올해 진행한 미니올림픽이 현장 참여율이 낮아 난항이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축

제 프로그램 말고 아예 새롭게 기획해서 진행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 학교 축제는 매년 ‘노잼 축제’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우리 총학을 믿고 참여해 준 재학생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준비기간 동안 우는 임원도 있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지만,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기쁘고, 할까분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축제는 많은 이들의 노력 덕분에 남부럽지 않은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또, 평소 교류가 적은 생활체육대학, 스포츠문화예술대학, 스포츠과학대학 세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즐기며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학생 참여형 활동이 많아 체대생답게 활발하게 놀 수 있었고, 설문조사 학생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해 이를 충족시켰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만하다. 올해 문제가 되었던 안전상의 문제와 쓰레기 처리, 운영진 무시 등에 대해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한다면 내년에는 더 화끈한 축제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민주적 학생사회로의 첫 발걸음, 제45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제45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12월 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제45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총학생회 선거일 3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의 후보자 등록 마감 및 공약 공고를 거쳐 11월 21일, 11월 30일 각각 1차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공청회, 2차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공청회를 진행하고 12월 6일 최종 선거 및 당선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후보자 공청회는 한국체육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23조에 따라 1회 이상 실시되며 공청회 일정과 진행 순서 및 질서 유지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있다. 이에 제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 및 자질 여부 검증을 위해 2차례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재학생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기조연설 및 공약설명, 공약 정책 질의, 현장 질의 응답,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후보자 선거 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부터 최종 선거 전날까지로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20일 동안 진행된다. 또한, 11월 28일에는 최종 선거 부재자를 위한 사전투표가 시행될 예정이다. 11월 11일 기준 등록된 후보는 현재까지 총 두 회장단이 출마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후보자 등록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로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최종 등록 후보자는 추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번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단일 후보 선거방법 변경’이다. 2022년 8월 개정된 한국체육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에

따라 올해 총학생회장단 선거부터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학생 자치기구인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교수 및 교직원들의 관리하에 진행되어 왔다. 이는 전국의 어느 대학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사례이며, 학생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울리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학생 자치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에 학생 자치기구의 선거가 학생 스스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 관련 세칙을 개정하여 학생으로만 구성된 ‘제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본회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올해 처음 신설된 제1대 중선관위는 학과별로 각 학과의 학생회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되어 총 13명의 인원으로 운영된다.

또한, 중선관위 구성과 함께 단일 후보 선거 방법이 개정되었다. 기존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는 단일 후보자가 출마할 경우,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으로 당선인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선거 관련 세칙을 개정해 따라 단선일 경우 선거권자 1/3의 투표 및 투표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 경선일 경우 선거권자 1/3 이상의 투표로 개표해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제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본회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제7조(구성) 중선관위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호선된 1인, 각 학과 학생회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중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다.

- 총학생회장단 입후보자인 경우
- 선거운동본부장 혹은 선거운동위원인 경우
- 본회의 회원이 아닌 경우

제5장 투표 및 당선

제31조(당선인 결정)

- 당선인은 최다득표자로 한다.
- 단선일 경우, 선거권자 1/3 이상의 투표 및 투표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 경선일 경우, 선거권자 1/3 이상의 투표로 개표해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 최다득표자가 복수일 때, 무효표의 수가 득표차보다 많을 때, 재투표를 시행한다.

소리를 한데로 모으는 역할은 총학생회에서, 모인 학생들의 목소리에 누구보다 집중하고 경청하는 역할은 총장이 해야 할 것이다. 1977년 개교 이래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하게 학교와 학생 모두가 총장, 총학생회장단 선거 진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

리의 권리를 찾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자치가 보다 민주적이고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총장 선거,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방지혜 기자 202090020@m365.knsu.ac.kr

한국체대 최고경영자과정 제39기 발전기금 약정식 진행

최고경영자과정 제39기 문왕수 회장 및 원우회가 50,000,000원을 기부했다.

‘생활협동조합 제1차 대의원총회’ 개최, 학식 가격의 행보는...

한국체육대학교 본관 1층 합동강의실에서 ‘생활협동조합 제 1차 대의원총회’가 지난달 31일에 열렸다. 해당 총회에는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임직원을 비롯한 다수의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총회는 2021년도 생협 사업 보고 및 각종 회계 관련 승인안과 더불어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진행됐다.

생협 관련 다양한 안건 및 보고, 질문들로 열린 분위기를 이어가던 중 기타 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학식 가격’이 언급됐다. 공식 석상에서 학식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된 것은 지난 8월 총장간담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생협 조합원이자 현재 우리 대학 경기지도학과 학과장을 역임하고 있는 장익영 교수(이하 장 교수)였다. 장 교수는 “우리 대학에서 처음 생협이 시작됐을 때, 5,000원의 학식이 준비됐다가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6,600원으로 오르지 않았느냐”고 학식 가격 상승 배경에 대해 언급하며(지난 학보 10월호 1면 참고), “당시에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학식 가격을 낮춰주기로 약속했는데, 현실점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 생협 측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약 3년여 전 코로나19를 이유로 학식 가격을 올렸으니,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온 현재에 약속대로 다시 학식 가격을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생협은 2020년 설립 이후, 코로나 19 사태로 재정 악화를 겪은 바 있다. 하지

만 앞선 2021년도 결산보고에서 “생활협동조합 설립 직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식당 공사 및 식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덕분에 당기순이익 457만 원을 달성했다.”라는 대목을 통해 어느 정도 재정적인 안정을 되찾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 교수의 질문에 총무팀장은 “현재 그 부분에 대해 생협 측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며 “다만 현재 큰수저 식당은 정식으로 단일 메뉴를 구성하고 있고, 신축 도서관 건물 지하에 새로 오픈할 예정인 식당은 캐주얼한 음식(단품 메뉴 등)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새로운 식당이 운영됨에 따라 두 식당 간 메뉴 경쟁을 통해 가격 조정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재 생협 조합원인 노인체육복지학과 박재희 교수는 “신축 도서관이 계획대로 라고 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개관할 예정이고, 개관 이후에도 단기간 안에 학생 사용 인원이 대폭 늘거나 하는 등 상이하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이야기하며, “가능하다면 신축 도서관 식당은 별도로 두고서라도 지금부터라도 가격 고민을 해서 하루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생협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정현택 교수는 “사무국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라고 밝혔다.

기민정 기자 202071004@m365.knsu.ac.kr

‘타하 알 키쉬리’ OCA 집행위원회 명예박사 수여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 OCA) 집행위원 겸 아시아 수영연맹 사무총장인 타하 술라이만 알 키쉬리(Taha Sulaiman Al Kishry)(이하 타하)가 10월 18일 본관 1층 합동강의실에서 한국체육대학교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타하 위원은 지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임원으로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우리나라 출전선수 분쟁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다.

안용규 총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체육대학교 동문으로서 인류의 스포츠 발전과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를 위해 더욱 노력주시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타하 위원은 “명예학사학위를 보유함으로써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아시아와 세계에서 스포츠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평생의 사명을 계속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사를 마쳤다.

그동안 한국체대 명예박사 학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와



타하 술레이만 알 키쉬리(Taha Sulaiman Al Kishry)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집행위원 겸 아시아수영연맹 사무총장이 명예박사 학위 취득 후 담사를 하고 있다.

재정위원장 세르미양 능 등 체육계에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되었다.

권규태 기자 202220003@m365.knsu.ac.kr

